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성경:

Tag:

<찬양예배>

제목 : 이번 생의 함정

성경: 히브리서 9장 27-28절

Tag:

27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9:27)

28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9:28)

이번 생의 함정. 많은 사람이 이번 생은 망했다는 최면에 빠져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

윤회의 거짓말. 그럴듯하고 해답을 다음 생으로 보내는 꼼수.

마무리 되지 않고, 해답이 없는 인생으로서는 그럴듯한 변명.

그러나 해답이 없지 않고, 복음만이 해답임.

해답이 없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고 억지스러운 주장. 복음이 이미 있음.

-불교인도 믿지 않음. 해악설이 많아짐.

-내가 지금 고생해도 다음 생에 내가 쌓은 공을 내가 알 수 없음.

-그냥 그랬을 거란 믿음? 과연 설득력이 있는 말인가?

-사회 개혁은 이를 수 없다.

-왕정을 고치지 않으면 윤회가 아무 소용이 없음.(사회 제도 자체를 구치지 않으면 불가능.)

-당신이 게으르고 염세적인 이유는 윤회를 믿기 때문이다.

-윤회론 폐기론이 불교계에 과다함.

-그러나 많은 드라마가 이번 생은 망했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븐 알렉산더. Proof of Heaven. by Eben Alexander III. 2012 (trans korean at 2013)

이븐 알렉산더. 의학박사. 뇌과학자. 교수. 듀크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음. 버지니아대학교에서 뇌기능 매핑 연구. 뇌의학 신경외과 전문의.

성공회 교인.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음. 크리스마스 신자보다 조금 나은 정도. 천국을 믿지 않음.

천국에 대한 논리적 입증.

2008년 11월 10일 54세에 뇌척수액을 통해서 침투한 대장균에 의해서 대장균성 뇌막염에 감염되어 응급실에서 7일동안 혼수상태로 지내다가 생물학적 사망판전 직전 기적적으로 깨어남.

-대중균의 뇌척수액을 통한 감염은 불가능한 일.

-뇌수막염을 앓다가 깨어난 경우는 기적.

-그가 응급실에서 두시간동안 울부짖다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라는 세마디를 끝으로 완전한 무반응 상태로 돌입.

(오래도록, 약 며칠.) 지렁이 감각으로 지냄.

-나비 무리들 위로 하늘을 나는 경험을 하게 됨.

중심근원에 있을 때는 소위 '암흑에너지'나 '암흑물질'처럼, 앞으로 여러 세대가 지나도 쉽게 이해되지 않을 그런 어려운 우주의 구성요소들도 명백히 이해되었다.

그렇다고 내가 당신에게 이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역설적이지만, 나 자신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배우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내 경험을 잘 표현하자면, 내가 보다 넓은 또 다

른 종류의 삶을 미리 맛보았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자유의지는 우리가 지구상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 모두 발견하게 되겠지만 이 기능은 더 중요한 역할, 즉 시간이 없는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상승할 수 있게 한다. 보이는 우주 및 보이지 않는 우주들에 있는 다른 세계들, 다른 생명들과 비교했을 때, 지상에서의 우리 삶은 의미 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의 역할은 신성을 향해 성장해가는 일이다.

이 책은 기독교인의 천국여행에 관한 책이 아님. 거의 무신론자의 죽음 직전 체험임.

-이 책에서는 아직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증언은 나오지 않음.

*초 감각에서의 오감=통감.

-오감을 통해 지각하는 것이 아닌, 존재 그 자체가 전체적인 감각으로 전달됨. 모든 존재는 일체감을 갖는다. 지식은 전달이 아닌 직관이 됨. 내가 대상과 일치됨.

초월적 세계의 정보 전달 방식을 3차원에서 설명하기는 곤란.

초자아 경험. 내가 사라지고 내가 모든 대상과 일체감을 느낌.

언어를 넘어선 정보전달.

실재란? 초감각이 더 강력한 실재이고, 현실은 더 빈약한 실재일 뿐이다.

내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과학과 내가 저 너머에서 배운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뇌란?

초월과 내재 사이에 있는 필터. 3차원에서 사용되는 정보만 걸러내는 곳.

뇌란 오감으로 얻은 정보 중에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걸
어내는 곳.

뇌≠의식. 뇌작용이 의식은 아니다.

자유의지가 나를 성장시키는데, 악이란 자유의지가 자유의지되게 하
는 것. 우주에는 악이 극소수 존재할 뿐.

1953년 11월 생. 4개월 후 의사에게 입양. (고2의 아들로 태어남.)

친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함.

친부모가 관계를 거절할 때 처음으로 고아임을 경험하게됨. 이 경험
이 하나님경험과 일치함을 고백함.

임사체험 중 죽은 동생을 만남.